

연중 제15주일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7 **I2**

[가해] 제2545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마태 13,3)

오늘의 전례

임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
이다.

제1독서 이사 55,10-11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
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
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
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
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
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18-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
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3,1-23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
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
마무리 토크콘서트, 대신학원 강당(6.30.)

소리주보
QR코드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일의 강론

유천성당 주임 | 김성근(요셉) 신부



어떤 곳에 떨어지더라도

복음에 나오는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을 우리 영혼의 상태에 비추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손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단점 많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습,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때론 돌밭 같고, 때론 가시덤불 같으며, 때론 태양 아래 아스팔트 길 같은 우리에게 늘 당신 사랑의 씨앗을 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밭을 고르고 가시덤불을 쳐 내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만,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안에서 활동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다음 해 또 나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을 치유해 나가듯,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 같은 나의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어린 영혼의 체험을 통해, 용서와 이해의 폭을 또 키워나갑니다. 조금하게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나태하게 쉬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어느덧,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겸손되어 손을 내밀고, 온전히 당신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길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주변의 영혼들이 평화와 평화를 느끼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멘. **복음**

■ 말씀 KEY WORD

좋은 땅에(ἐπὶ τὴν γῆν τὴν καλὴν)

씨앗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대개 좋은 땅에 떨어져 백 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에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권고로 읽곤 합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좋은 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씨앗이 삶의 서로 다른 자리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 말씀이 스며들 틈조차 없습니다. 어떤 날은 돌밭처럼 기쁨은 금세 식어 버리고, 어떤 날은 가시덤불처럼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가득 메워 말씀을 숨 막히게 합니다. 물론 작은 위로 하나에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좋은 땅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 땅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피해 가지 않고, 우리 삶의 메마른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씀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때를 기다릴지라도, 씨앗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 마무리 토크콘서트 개최

한 달여 동안 교구 곳곳을 순례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토크콘서트가 6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희망의 길, 함께 걷는 젊음'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구교를 비롯해 수도자와 신자, 청년들이 함께하며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희망을 나눴다. 토크콘서트에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영남대학교 관현악과 백운학 교수와 사회학자 오찬호 요셉 박사가 초청돼 각자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 이어진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 영상을 시청하며 순례의 감동을 되새겼고, 사물놀이와 댄스 팀의 공연, 청년 콘서트가 이어져 참석자 모두 하나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교구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청년들의 신앙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북돋우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대구대교구 순례 마무리

6월 3일(수)부터 7월 1일(수)까지 이어진 우리 교구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순례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대구 교구대회 준비를 통해 우리 교구 공동체와 젊은이 사목 그리고 각 본당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382

1. 2027 WYD 대구 교구대회 홈스테이 1차 신청 현황 제출

홈스테이 1차 신청 현황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본당은 7월 21일(화)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연락 WYD 교구 조직위원회-2026-07 참조)

2.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교구 순례 수기 공모

대상_ 교구 신자 접수_ daegu2027wyd@naver.com
마감_ 2026년 8월 15일(성모 승천 대축일)

3.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봉사자 2차 모집

대상_ 2027 WYD 대구 교구대회 봉사를 희망하는 교구민
모집인원_ 선착순 120명 마감_ 2026년 8월 15일(성모 승천 대축일) 19:00
모집분야_ 사무국 지원, 가이드, 안내·의전, 전례, 양성, 통역, 문화·홍보 콘텐츠, 환경·시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구 교구대회”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운동 **32,823,956** 단 (2026. 6. 21. 기준)

글로 이어진 복음의 씨앗, 가톨릭신문의 출발!

교구 문화홍보국 장성영 안드레아

1920년대에 들어서며 교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넓어진 교구의 소식을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본당과 공소를 오가는 데만 며칠씩 걸리던 시절, 드망즈 주교는 신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필요했습니다.

1924년 7월, 대구대목구 청년들은 ‘남방천주공교청년회’를 조직하여 사회·교육·출판 사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드망즈 주교는 이러한 젊은 신자들의 열정을 적극적으로 격려했고, 그 결실로 1927년 4월 1일 『천주교회보』가 세상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가톨릭신문』의 자랑스러운 출발점입니다.



『천주교회보』 창간호

창간 당시 『천주교회보』는 “소식 보도, 의견 교환, 보조 일치”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발행인은 대구대목구 주교대리 겸 주교좌 계산성당 베르모렐 주임신부였고, 편집은 청년회장 최정복을 비롯한 청년들이 담당하여 젊은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신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창간 초기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매호 발행을 이어가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드망즈 주교는 마침내 『천주교회보』를 대구대목구의 공식 기관지로 인정하고 교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주교는 사제들에게 “지금 있는



『천주교회보』 사무실

이 사업을 없애지 말고 더욱 발전시키라.”라고 강하게 권고하며 출판 사도직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드망즈 주교의 든든한 후원 속에서 『천주교회보』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행 부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2,000부에 이르렀고, 멀리 만주와 중국, 하와이까지 독자를 확보하며 전국적인 가톨릭 언론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1933년 전국 교회의 출판 정책 개편에 따라 『천주교회보』는 창간 6주년 기념호를 끝으로 아쉬운 휴간을 맞이했지만, 그 숭고한 정신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복 후 1949년 복간된 신문은 『가톨릭신보』, 『가톨릭시보』를 거쳐 오늘날의 『가톨릭신문』으로 그 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가톨릭신문은 영광스러운 창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 세기 전, 드망즈 주교가 “복음을 글로 전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지켜낸 작은 교구 신문은 이제 한국 가톨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가톨릭신문의 발자취는 단순한 언론의 기록을 넘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자 했던 거룩한 선교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빛남**

신학교 학생들의 동요

3월 1일(토)

소촌에서 10시 55분에 버스를 탔다. 좌석이 하나뿐이었지만 운전사의 옆좌석이었기 때문에 꼭 죄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장으로 인해 5번이나 정지를 했으며, 한 번은 짐수레와의 충돌로 인해 나의 가방이 빠져나가 길바닥에 던져졌으나 다행히 큰 손해는 없었다. 버스는 2시간도 더 지체되어 타이어 하나가 터진 상태로 도착했다. 3시 30분에 본당에 도착해 점심 식사를 했다.

3월 2일(일)

페랑 신부가 오후에 도착했다.

3월 3일(월)

2시 40분 기차로 마산을 떠나 대구역에 7시 20분에 도착, 무세 신부가 나와 있었다.

3월 5일(수) [성회례침례]

대성당에서 예절이 있었다. 로베르 신부 집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저녁에 투르뇌 신부가 왔다.

3월 6일(목)

베르몽 신부가 마산에서 갖고 온 잡종 포도 묘목 18그루를 적당한 자리에 심었다.

3월 7일(금)

나는 평화 회담을 위한 교황 성하의 기도 지시를 따라 뮌헨 주교와 협의하여 지시한 ‘여행자를 위한 기도’를 ‘평화를 위한 기도’로 바꾸도록 동료 신부들에게 통보했다. 교우들을 위한 것은 다음 호 잡지에 공포될 것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전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서울과 다른 곳에서 조선 독립을 위한 시위를 했다.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지만, 신문들은 절대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구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흥분되어 있다. 그들은 그저께 저녁에 운동장에서 독립을 위한 노래를 불렀고, 교장은 그것을 그만두게 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 후 화들이 나 있으며, 아마도 성소를 잃은 학생들이 나올 것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쇄신’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

본당 전례와 행사에
청년들의 참여 역할 확대하기

청년 친화적인 신앙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본당 청년 사목을 점진개선하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교구 일정

선종 사제		미사 안내	교구 행사
7 13(월)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황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00 범어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00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00 죽도성당	
14(화)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30 계산성당	
15(수)			농민주일 특강, 10:30 교구청 본관 대강의실 예비신자교리교사학교 수료미사, 15:00 교구청 본관 세례자요한 경당
16(목)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00 평화성당	2026년 대구대교구-잘츠부르크대교구 청년 교류행사 - 26일까지 잘츠부르크대교구, 독일 뮌헨
17(금)	원동수 바오로 신부 (2025년 7월 17일 선종)		故 원동수 바오로 신부 선종 1주기 미사, 11:00 군위묘원 성당
18(토)		1대리구 4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동천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00 성모당	토비아 성지순례, 07:00 은이공소

■ 농민 주일 특강, “기후위기 시대, 토종씨앗의 중요성”

일시 7. 15.(수) 10:30~12:30

장소 교구청 본관 대강의실

강사 변현단 가타리나 (사)토종씨드림 대표

대상 토종씨앗에 관심있는 분

회비 1만원

신청 QR 코드로 신청

문의 교구 생태환경 및 농어민 사목부, 250-3072~3



■ 2026년 하반기 기도와 치유미사 일정 안내

일시 8. 7.(금) / 9. 4.(금) / 10. 2.(금) / 11. 6.(금) / 12. 4.(금) 19:30

장소 개별 접수 후 안내

대상 가족의 죽음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신자

진행 연도 후 미사 봉헌(고해성사 가능)

신청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 좌석 준비를 위해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신청 QR코드 ▶



■ 수도회 | 피정 알림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7.18(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성모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남자 수도 생활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수도자의 삶에 관심있는 청소년, 청년

문의: 성소부, (010)5195-3217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 상담

장소: 본원(칠곡), 계산서원(대구)

대상: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3265-6219

※ 개인 피정 가능합니다.

효령하늘집 "나도 가보자~"

침묵과 관상의 개인 피정

면담과 치유 / 소그룹 피정(Pr)

미사: 주일 11:00, 수요 치유미사 16:00

문의: (054)382-0091

대구성령새신봉사회 1일 대피정

일시: 7.18(토) 10:00~18:00

장소: 월막피정의집 대성전

강사: 김태광 신부 / 미사: 김준년 신부

참가비: 1만원(20세 이하 무료)

문의: (054)954-0951 / (010)5119-5608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일반부(35세 이하 남성): 7.30~8.2(3박 4일)

중고등부: 8.4~6(2박 3일) 캠프로 진행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010)6608-3217

바오로딸 도심 속 하루 피정

일시: 8.1(토) 13:00~17:00

장소: 대구바오로딸 3층 성당

주제: 주님과과의 만남, 힘과 기도

신청: (010)6681-5185

2026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8.1(토)~2(일): 고3~35세 이하 미혼 남성

장소: 대림동 살레시오수도원

8.15(토)~16(일): 중1~고2 남학생

장소: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마감: 7.31(금) / 문의: (010)6221-3520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8.15(토) 11:00~16(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회비: 9만원(사전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010)5490-5345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마라도 순례: 8.21~23

우도: 7.24~26 / 올레길: 9.17~19

억새길: 10.14~16 / 10.22~24

추자도 순례: 9.4~7 / 9.11~14

문의: 면형의집, (064)732-4702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기간: 9.3(목) 17:00~6(일) 15:00

장소: 제주 성이시돌피정의집

피정동반: 구정모 신부(마르코, 예수회)

피정비: 30만원 / 신청: (064)739-0951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일반 | 기타 알림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심화: 성문서/지혜문학(월)

일반: 요한계 문헌(화), 복음서(수),

예언서(목), 모세오경(금)

오전반 10:00~12:10 / 저녁반 19:30~21:30

문의: (010)8750-6573 / (010)2770-4627

부산교구 성령새신봉사회 묵상회 안내

518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일반)

: 7.17(금) 18:00~19(일) 17:00

519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청소년)

: 7.24(금) 16:00~26(일) 17:00

장소: 양산영성의집, (055)382-9465

M.S.M. 체나콜로 7월 미사(매월 셋째토)

성모신심미사와 기도회

일시: 7.18(토) 10:00, 삼덕성당

강사: 서동완 비오 신부

문의: (010)9366-9170

※ 대중교통, 공용 주차장 이용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강의)

2026년 2학기 모집 안내

기간: 9.3~12.10 (매주 목) 21:30~22:30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문의: (010)8911-5957 / 15주

인터넷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동영상 강좌

(9월 개강)

신의 위로, 노래에 머무는 시간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문

죽음수업

문의: center.jesuit.kr

제주운전기사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골프, 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10)4566-6476

2027년 간 김에 순례(성지순례) 프로그램

장소: 유럽 수도원 및 성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주최: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신청: (010)5577-3605

※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배너 참조

캐나다 가톨릭 공립학교 교환학생 선발

신앙과 교육 안에서

세계로 성장할 학생을 기다립니다.

학교장 및 봉당 주임신부 추천자 우대

문의: (010)4390-4493

CanadaCatholicSchools.ca

교구 | 대리구 알림

예비신학교 여름 성소캠프 & 피정

중1-2: 7.15(수)~17(금)

중3-고1: 7.17(금)~19(일)

고2: 7.21(화)~22(수)

고3,대학일반: 7.28(화)~30(목)

문의: 성소국, 250-3071

18차 약혼자 주말

기간: 8.28(금) 20:00~30(일) 15:00경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대상: 예비부부 및 혼인 1년차 부부

참가비: 2인, 36만원 / 마감: 8.20(목)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영천성당 묘원 봉안담(영원한천국)

분양 안내

장소: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4-3

구분: 부부단, 개인단

문의: (054)338-3381

시설 | 기관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발성법, 가야금 성가, 합창교실,

성인 모래놀이치료, 제대꽃꽂이, 피아노,

캘리그래피, 캘리엔그림, 현대미술산책,

성가반주 오르간, 가곡과 성가, 유희,

사범자격과정 꽃꽂이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일반검진, 암 검진

(암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전인병원 - 세포재생증식센터

고관절·골반인대 강화

질병으로 인한 신체부위 보강

요통·회전근개염 등 통증완화

신체기능 재생 및 개선

문의: 1688-7667 (9:00~17:30)

조리원 채용

성바오로청소년의집에서는

아동 단체 급식을 담당할

조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자격: 만 60세 이하

문의: (054)382-2834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실버&성인 필리핀 영어연수

단체 출국: 8.30(일)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내용: 주중 영어연수, 주말 봉사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7월 13일(월) ~ 7월 18일(토) 6:50, 16:50, 23:50 장개석(베드로) 신부

대구연세안과
실크스마일
레이저 백내장 수술
대표원장 박종원(소시목)
의학박사(현 연세대 외래교수)
문의전화 626-8881~5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오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조 제 전 문
세계로악국
상담전화 053 652 1122
이운수(라파엘) / 이소담(마리아)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문 앞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가람소방방재(주)
(주)가람이엔지
전문소방시설 점검 및 공사
기계설비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053)288-3260 / 010-4245-0507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10-6572-2233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상가 3층 307호
김경임(아네스)

파크골프
골프채·최대 50% 수입채 레슨가능
신일선풍기 에어서클 소형가전
소금열작곡기 게르마늄옥매트
(주)매일프라자
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자관 동문 1-240호

김앤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파킨슨병 / 치매
뇌혈관질환 / 손발저림·떨림 / 통증
원장 김성제(베네딕도) 신경과전문의 | 의학박사
감상역 3번 출구 053)625-8899
40m(시민약국 건물) 5층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일구 대성빌딩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백두병원
SINCE 1975
대구, 경북 최초 스트라이커사
마코 무릎인공관절수술 로봇수술
어깨 보존치료우선 관절경수술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 053-425-5919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아오싱)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하지정맥류를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맥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코리아알트만
43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DOCK KIM 도안김연내과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나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르노코리아 신차/시승/상담
“대형CUV 필라트” 즉시출고가능!
그랑클레우스(하이브리드SUV)
아르카나(소형쿠페형SUV)
※ 상담 및 시승 요청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박병목(헤르메스) 010.4795.2026